

都市綠地와 生活環境

— 都市綠地 어떻게 할 것인가 —

慶熙大學校 造景學科
教授 徐周煥

도시는 지극히 복잡한 복합체로서 도시 구성요소의 시민(citizen), 활동(activity), 토지와 시설(land and facility) 등이 그 시대적 배경에 따라 개념과 기준을 달리하며 도시의 지역구조 및 공간구조를 변화시켜 오늘날과 같은 도시화 과정이 복잡 다양한 현대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다.

1970년대 이후 고도성장기에 따른 都市化는 급격한 사회, 경제구조의 변화 및 인구증가와 함께 생활수준의 향상과 여가수요의 상대적 증대로 말미암아 자연과 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또한 각종 공해등의 도시환경문제를 유발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도시환경문제가 대두되자 도시공간내의 기능공간을 둘러싸고 생활환경 형성의 주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도시녹지의 중요성 및 효용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게 되었다. 즉,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생활환경의 質적 향상을 위해서 파괴되어가는 도시환경을 보존할 수 있고, 매일매일 틀에 박힌 생활주기와 패턴에서 헤어나고자 하는 도시민들에게 창조적 생활의 기틀을 제공해주는 도시녹지의 필요성을 누구나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도시녹지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심리학적 변화과정에 의하여 위치, 크기, 형, 그리고 시설물과 경관 등이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도시시설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의 의미보다는 질적 개선을 통한 이용의 편의 및 효용성의 증대가 인간 생활환경의 문화공간 창조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즉,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조한다는 차원에서 즐길수 있는 레크레이션(recreation)의 場 및 자아를 발견하고 재창조(re-creation)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도시녹지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문제점 도출과 해결책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대도시의 녹지는 도시공원과 개발제한구역(greenbelt)을 위주로 형성되어 있다. 그중 그린벨트의 경우 1971년 이후 전국 29개시 39개군에 걸쳐 5,397km²의 면적으로 전국토 면적의 55%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는 도심으로부터 반경 10-30km 권역에 평균 폭 10-15km로 1,556.8km²의 면적으로 설정되어 서울시 전체면적의 약 2배에 해당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도시공원은 1988년 현재 1,241개소 153.4km²가 확보되어 있어 양적인 측면에서는 도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녹지면적으로는 부족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시녹지란 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원생적 천연상태로의 존재의미도 매우 중요하나 그보다는 도시민들의 여가시간 활용의 장으로서 모든 도시민에게 이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용시 최대한 만족감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후생적 차원에서의 존재가치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대도시 녹지중 적극적으로 레크레이션의 장으로 제공되어 인간의 재창조(re-creation)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도시공원이 서울시의 경우 불과 27%밖에 시설공원으로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그린벨트는 이용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녹지라 하겠다.

종류를 불문하고 도시녹지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그누구도 존재가치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환경전문가들 대부분의 견해였으나, 이와같은 생각은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날로 위협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경제학자들은 최근 연구를 통하여 인구억제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방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보존하고자 마련된 그린벨트가 역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Mills교수는 최근 도시내 녹지의 존재가 도시인들의 쾌적성을 증가시키는 효용성은 인정하나 비용(cost)측면에서 서울시의 그린벨트를 도심권 방향으로 폭 1km를 해제했을 경우 월 33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부 경제학자들은 공원과 같은 오픈스페이스(openspace)가 조세체원의 상실이나 토지차원에 대한 갈등을 야기시킴으로서 효용성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으며, 일부 사회학자들도 도시범죄의 근원지화 되어가고 있는 도시녹지의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행정당국에서도 도시계획 정책중 가장 훌륭한 업적으로 자부심을 갖던 그린벨트 설정을 재검토하면서 도심내 버스종점이나 공해업소등을 그린벨트내로 옮기자는 견해를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다. 이와같은 주장들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않으나 비용(cost)면에서의 실증적 자료제시를 통한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주장이지만, 이에 반박하는 생

환경내의 쾌적성 제고측면에서의 녹지존재 효과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분석은 미진한 상태로 객관성이 결여된 주장을 환경계획가들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타당성있는 연구결과에 따라 도시녹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할 뿐 아니라 자연생태계를 최대한으로 보존하면서 도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효용성 증대방향도 모색해야 할것이다.

날로 고밀화되어가는 도시구조속에서 증가되는 인구를 도시라는 공간내에 수용해야만하는 실정에서는 이 도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쾌적의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적극적 개발전략을 수립해야 할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녹지의 면적을 확장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地價문제등에 의해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주어진 면적 내에서 최대의 효용성을 증대시킬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해결책은 적극적 개발을 통하여 많은 도시민에게 이용의 기회를 최대한으로 제공하여 이용만족도를 최대로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무한정한 개발로 인한 자연의 파괴는 그보다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Heuberf의 견해와 같이 한국인들은 공원이나 공공휴식처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자연풍경속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거닐기 좋아한다는 한국인의 자연에 대한 회구 추구와도 상반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생활의 질을 위해 파괴되어가는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현세의 환경파괴 방지는 물론 후세의 도시민들도 더이상 환경문제로 도시라는 요람속에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를 자초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도시민들의 레크레이션, 휴양, 스포츠, 어린이놀이, 오락, 각종행사, 산책 및 교양등 다양한 사회문제적인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개발과 도시내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심리적 불안감을 치유할 수 있는 정신적 휴양처로서의 기능도 담긴 도시녹지로 만들어야 할것이다.

이를 위해서 조경을 포함한 환경계획가들은 급변하는 도시화 및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는 도시공간에서의 도시녹지에 대한 상반된 두가지 측면 - 개발과 보존 - 을 모두 고려한 도시녹지의 개발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구조와 도시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고려한 공원녹지계통의 재검토에 의하여 도시민들에게 양질의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